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10

■ 세계의 윤리기업

2022 October

I

VOL. 118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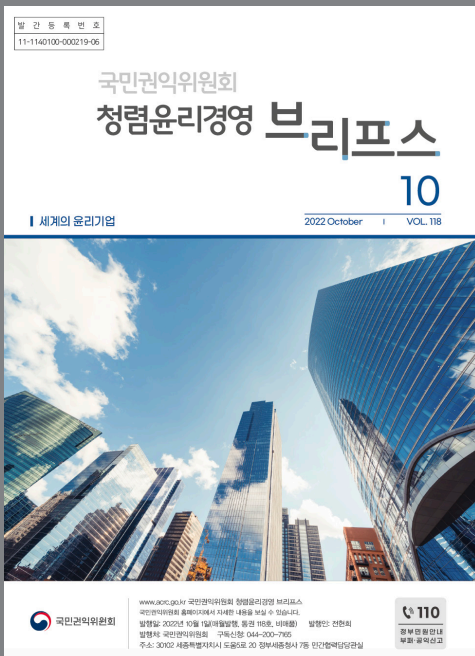
발행일: 2022년 10월 1일(매월발행, 통권 118호, 비매품) 발행인: 전현희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신청: 044-200-7165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 110

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신고



COVER STORY

기업의 사업 영역이 세계 시장으로 확장되고 법과 규정 준수에 있어서만 글로벌 수준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하고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기업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고민할 때이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들의 특징과 사례를 통해 청렴윤리경영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01	전문가 코칭	04
	윤리경영을 넘어 가치경영으로	
02	사례돌보기	07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활동	
03	보고서리뷰	11
	기업의 지속가능성,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거버넌스부터 구축해야	
04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15
	윤리적 리더십과 청렴윤리경영	
05	문화 속 기업윤리	19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도서, 퍼포스 경영	
06	뉴스클립	20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 국내외 동향	
07	웹툰: 바로보는 기업윤리	22
	소통의 힘	
08	행사소식	23
09	퀴즈	24



윤리경영을 넘어 가치경영으로

전문가 코칭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Q1. 국내 기업의 사업영역이 넓어지고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부패와 같은 윤리적 리스크 관리를 넘어서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적 환경에서 특별히 개선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윤리적 리스크는 제도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이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권위주의 시대에는 투명성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패가 심각한 제3세계 국가들과 비교해 유독 한국만이 고도성장을 한 비결이 무엇인지가 국제적인 궁금증의 대상이었습니다. 급성장하는 경제에 비해 뒤처진 제도 속에 성행한 ‘급행료’는 제도 공백이나 지체의 갭을 메우는 윤활유 역할을 했고, 낮은 처우를 받는 공무원에게 서비스가 급한 이들은 급행료를 제공하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행정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였다는 것이 기능주의적 설명입니다.

주로 규제자가 자원을 사유화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아프리카의 후진국형 부패나, 친인척을 등용해 공기업을 관리하는 러시아의 족벌형 부패와는 구별되는 순기능의 측면도 있었다는 너그러운 해석입니다. 고도성장을 한 중국이나 신흥시장에서는 여전히 관찰되는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경우 부패로 연결될 수 있는 카르텔화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정치권과 고위공무원, 판검사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영향력을 의사와 비교해 추정해본 결과 고위 공무원은 의사의 약 5배, 국회의원은 의사의 약 50배에 이릅니다. 판검사의 영향력도 이들 못지않게 막강합니다.

막강한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은 서구 계약주의 사회에서보다 훨씬 강한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쳤던 싱가포르와 홍콩의 반부패 성공모델은 한국에 주는 함의가 큼니다. 강한 의지 없이는 우리 경제수준에 걸맞게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으며, 투명성 제고 없이는 더 이상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양적 투입이 아니라, 제도의 질적 수준입니다. 과학기술 투자, 대학 진학률, 인프라 투자 등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 노사관계 관련 제도, 금융산업의 품질, 교육의 수준 등 질적인 측면은 그에 비해 부족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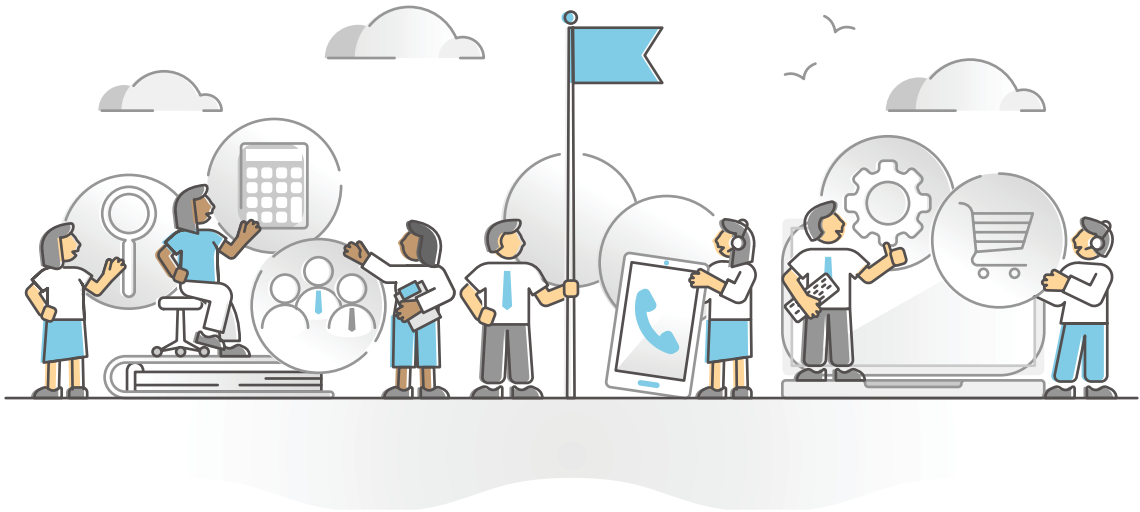
Q2.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존경받는 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모두 기업시민으로서 준법정신을 발휘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적 성과는 떨어지나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면 ‘착해 빠진 기업’, 이윤을 많이 남기지만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면 ‘알미운 기업’,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 둘 다 충족하지 못하면 ‘멍청한 기업’, 재무적 성과를 내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똑똑하고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적 가치를 녹여 중요한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존경받는 기업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이해관계자들과 ‘공유가치’를 키워야 장기적으로 기업도 성장하고,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도외시됐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생산성의 기준과 범위를 다시 정의함으로써 지역이나 협력사 클러스터의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연결 사회가 낳은 기업 환경 변화는 ‘알미운 기업’이 돌발적인 윤리적 리스크에 처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기업 성과를 오랜 시간 추적 조사한 연구들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성장률이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똑똑하고 존경받는 기업은 이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행복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기업 평가 모델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무적 가치 위주로 정의하던 기업의 성공을 환경, 비즈니스 모델, 지역사회, 거버넌스, 기업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 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고, 비콥(B-corp) 인증¹⁾은 그 표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은 사회적 가치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와 소비자의 변화된 가치가 기업에게 본격적으로 글로벌한 전략 기준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는 ‘의식있는 자본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치경영이 새로운 대세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빌 게이츠는 2007년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연설하면서 졸업생들에게 자본주의의 양대 축인 시장과 기술혁신을 활용해 가난과 질병으로 인한 인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 인류 불평등 문제 해결과 같이 이윤극대화를 뛰어넘는 ‘메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기업의 정당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 기업 구성원에게 내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이해당사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적 자본주의’를 통해 세상은 더 살 만해질 것입니다.



1) 비콥(B-corp) 인증: 미국 록펠러 재단이 출자한 비영리 단체 비랩(B Lab)에서 기업의 사회·환경적 성과와 투명성 등을 전반적으로 측정·검증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인증 부여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활동

사례돌보기



2022년 포춘(Fortune)이 선정한 ‘가장 존경받는 기업 Top 100’의 기업과 에티스피어 재단(Ethisphere Institute)이 ‘세계 최고 윤리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윤리경영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존경받는 기업’,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칭호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또 우수하게 이행한 기업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많은 기업들에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포춘의 ‘2022 가장 존경받는 기업 TOP 100’에서 15년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에티스피어 재단²⁾의 세계 최고 윤리기업에 올해 새롭게 선정된 애플(Apple), 세계 최고 윤리기업에 16회 선정된 이콜랩(Ecolap), ‘2022 가장 존경받는 기업 TOP 100’에서 4위를 차지한 화이자(Pfizer Inc.)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에티스피어 재단: 기업윤리 전문 연구·평가기관으로 매년 '세계 최고 윤리기업' 발표



1. 이콜랩(Ecolap)

이콜랩은 1923년 미국 미네소타주에 설립되었고, 물 · 에너지 · 환경 분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이콜랩은 화학분야에서 에티스피어재단의 세계 최고 윤리기업에 16번 선정될 정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다. 이콜랩은 건강한 기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제 및 환경 문제 해결과 거버넌스 투명성 확보 등에 필요한 5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사회가 감사, 보상, 재무, 거버넌스 및 안전, 환경의 5개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각 상임위에 특정 권한을 위임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콜랩은 윤리적 기준 준수를 위해 조직에 최고준법감시인(Chief Compliance Officer)을 두고 있다. 최고준법감시인은 지역별 준법감시인과 최소 격년마다 각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준법감시인과의 긴밀히 소통하여 청렴윤리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콜랩은 또한 27개 언어로 행동강령을 제공하여 전 임직원에게 청렴 및 윤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직원들, 특히 신입직원들은 윤리강령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정규직 · 임시직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윤리 관련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체 직원의 99%가 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콜랩의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는 매년 행동강령, 글로벌 거버넌스 및 윤리 규정 준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평가에는 인권 이슈를 포함하여 14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 평가결과를 내부감사에 보고하여 업무수행절차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등 일련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연례평가결과는 최고준법감시인이 매년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지속적인 환류가 되도록 하고 있다.



2. 화이자(Pfizer Inc.)

화이자는 포춘 '2022 가장 존경받는 기업 TOP 100'에서 4위로 선정된 제약회사이다. 우리에게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로 잘 알려진 기업이기도 하다. 화이자는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던 2021년 전 세계 14억 명에게 약과 백신을 공급했으며 그 수치는 전체 인구 6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화이자는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Breakthroughs that change patient's lives) 실현과 사회에 대한 책임 이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화이자는 ESG를 축으로 하는 경영전략으로 '기후변화, 의약품 혁신, 의약품의 공평한 접근성, 다양성 · 평등 · 포용성, 의약품의 질과 안전성, 기업윤리'를 집중분야로 선정하여 세부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그 중 기업윤리와 관련하여 화이자는 직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제시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열린 소통, 다양성 · 평등 · 포용성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부사장 이상 고위급 임원 12명 중 3명은 다양한 인종으로, 12명 중 4명은 여성으로 임명하는 등 지배구조의 다양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화이자는 기업윤리 지침서인 '블루북'(The Blue Book)을 통해 전 직원이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 직원들이 수평적이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화이자의 노력에 힘입어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만족한다는 직원들이 90%에 이를 정도로 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적극 실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 실천을 통한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3. 애플(Apple)

“애플은 기술과 기술을 만드는 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합니다. 사람들의 권리와 건강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지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최고경영자 팀 쿡(Tim Cook)의 말에서 애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윤리경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애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애플이 매년 발간하는 ‘애플 공급망에 속한 사람과 환경보고서(People and Environment in Our Supply Chain Report)’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애플은 5천만 달러 규모의 협력업체 직원 개발기금을 출범하여 공급망 내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들에게 교육 및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자 권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애플은 2008년부터 사이버교육, 능력개발 및 심화교육을 진행해 왔고, 애플 공급망에 속한 직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사회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책임감 있는 조달 과정을 마련해 ‘애플 협력업체 행동 수칙(Apple Supplier Code of Conduct)’ 및 ‘Apple 협력업체 책임 기준(Apple Supplier Responsibility Standards)’을 충족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협력업체를 매년 공급망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비중은 약 9%에 달한다. 이러한 협력업체 평가는 외부평가를 통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최고경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협력업체에 즉시 중점 관리 대상 처분을 내려 시정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장 심각한 수준의 위반 행위로 학대, 미성년자 고용, 강제노동, 평가 방해, 뇌물 수수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협력업체가 애플의 일하는 방식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애플은 근로자 의견 경청·수렴, 현지 인권 및 환경보호 단체 지원, 근로자 권리의식 확대를 통한 근로자 보호, 건강 및 웰빙 증진을 통한 협력업체 지원, 안전제일문화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애플의 노력은 포춘이 선정하는 ‘가장 존경받는 기업 TOP 100’에서 15년간 1위를 놓치지 않는 저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 애플 공급망에 속한 사람과 환경보고서 <https://zrr.kr/x0Qc>
- <https://www.medigatenews.com/news/447263012>
- 2021 ECOLAB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https://zrr.kr/R0dK>



기업의 지속가능성,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거버넌스부터 구축해야

■ 기업 거버넌스를 위한 G20/OECD 원칙(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기업 거버넌스를 위한 G20/OECD 원칙(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이하 OECD 원칙)”에서 말하는 “Corporate Governance”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통제시스템의 의미를 내포한다. OECD 원칙은 이사회, 경영진,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시스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OECD 원칙은 흔히 기업지배구조로 해석되는 거버넌스 내용인 이사회, 주주 관련 원칙들을 담고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서 나아가 거버넌스의 의미를 기업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부패방지 활동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업 구성원의 부패 행위나 윤리기준 위반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며 기업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는 이사회의 높은 윤리 수준 확보와 함께 기업의 부패방지 통제시스템 구축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실제로 OECD 원칙을 살펴보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부패방지와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총 6개 장으로 구성된 OECD 원칙 중 ‘공시와 투명성’ 항목에서는 기업의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관계자거래, 위험요소 등을 주요 공시대상으로 규정하고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였고, ‘이사회와 책임’ 항목에서는 리스크 관리, 내부감사 등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감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권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OECD 원칙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대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효과적인 기업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기업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법의 지배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효과적인 감독과 집행을 지원해야 한다.

◆ 주주 권리와 공평한 대우 및 주요 소유권 기능

기업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주주의 권리행사를 보호하고 활성화해야 하며, 소수 주주와 외국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주주권이 침해된 모든 주주에게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

◆ 기관 투자자, 주식시장 및 중개기관

기업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투자체인을 통해 건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식시장이 우수한 기업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 기업거버넌스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기업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법률 또는 상호 합의를 통해 형성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기업과 이해관계자간의 적극적 협력을 유도하여 부와 고용을 창출하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 공시와 투명성

기업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주주구성, 지배구조를 포함한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 이사회 책임

기업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전략적 지도, 이사회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이사회 기업과 주주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

본 보고서리뷰에서는 OECD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 청렴윤리경영과 관련성이 높은 ‘공시와 투명성’, ‘이사회 책임’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시와 투명성

‘공시와 투명성’ 항목에서는 공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공시에는 ① 기업의 재무성과와 영업성과, ② 기업의 목적과 비재무적 정보, ③ 실질주주를 포함한 주요주주 및 의결권, ④ 이사회와 주요 집행간부의 보수, ⑤ 자격요건, 선임절차, 타 회사 이사경력, 독립성 보유 여부에 대한 이사회의 평가 등 이사에 관한 정보, ⑥ 관계자 거래, ⑦ 예측 가능한 리스크 요소, ⑧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⑨ 기업거버넌스 관련 내규와 정책의 내용과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한 거버넌스 체계 및 정책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⑦ 예측 가능한 리스크 요소’에는 이자율 및 외환 리스크와 같은 금융시장 리스크도 물론 포함되지만,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산업 및 지역 리스크, 파생상품과 부외자산¹⁾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불법영업 리스크, 환경 리스크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처럼 기업의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윤리, 사회적 이슈 등 비재무 정보에 대해서도 공시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OECD 원칙은 기업이 상업목적 외에도 기업윤리,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 인권 문제, 공공정책 참여 현황에 대해서도 공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이사회의 책임

OECD 원칙은 이사회에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사회는 자신의 활동뿐만 아니라 주요 간부의 임명과 감시, 내부통제 등을 통해 기업의 도덕적 기준 설정에

1) 부외자산: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아 회계관리 대상 외에 있는 자산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부정수단에 의해 축적된 자산까지도 부외자산이라고 함(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 확립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 법률준수가 윤리강령과 별도로 항상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윤리에 대해 규정한 윤리강령은 법률준수의무 이상의 것을 담고 있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OECD 원칙에서 말하는 이사회 기능 중 청렴·반부패와 관련이 높은 항목은 ‘이해충돌 문제에 관한 모니터링 및 관리’와 ‘통제시스템 구축’ 부분이다. ‘이해충돌 문제에 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서는 이사회가 통제제도에 대한 감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기업 윤리강령에서 신고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과 신고창구를 제공해야 함을 제시한다.

‘통제시스템 구축’에서는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보유한 기업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제를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뇌물과 부패방지 법률, 규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 윤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로 인센티브를 제시하였다. 윤리적·직업적 기준의 가치를 준수하면 보상을 제공하고, 법규 위반에는 제재와 벌칙을 부과하며,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자회사, 가능하다면 대리인, 중개기관, 자문기관, 대행기관, 공급업체 등에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OECD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으며, 정책입안자, 기업, 투자자, 이해관계자 등이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렴윤리경영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실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동향

2015년 OECD 원칙 개정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환경 변화, ESG 투자 확산 등 글로벌 기업환경에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개정 필요성에 따라 OECD는 올해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초안을 마련하였고, 2022.9.19.부터 10.21.까지 공개협의 중이다. 주요 개정 방향은 ESG 요소 반영,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보다 다양한 측면의 리스크 관리 방안 확립 등이다.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윤리적 리더십과 청렴윤리경영



최고경영자의 도덕성, 경영철학과 태도는 기업의 윤리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행위규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구성원들의 역할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를 포함하여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구성원 통제가 가능하므로 리더들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청렴윤리경영에 있어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과 리더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윤리적 리더십

1) 윤리적 리더십의 정의와 중요성

M. E. Brown 등은 윤리적 리더십을 '행동과 대인관계에서 규범적으로 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쌍방향 의사소통, 강화,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Trevino&Brown은 윤리적 리더십을 도덕적 개인의 특성과 도덕적 관리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리더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도덕적 개인, 도덕적 관리자)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윤리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인정¹⁾받고 있다. 도덕적 개인의 필수 요소로는 도덕성, 정직, 신뢰성, 타인에 대한 관심, 배려, 경청, 소통을 통한 공정한 의사결정을 말하고 있고, 윤리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윤리적 성과와 행동에 대한 보상 시스템과 조직의 윤리적 기준을 수립하는 등 도덕적 관리자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성과는 정(+)의 관계에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박상석, 김찬중(2018)의 연구²⁾에서 'CEO의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총 300개의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검증한 결과, CEO가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조직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리더의 윤리적 원칙 가이드

Gene R. Laczniak과 Patrick E. Murphy는 리더의 의사결정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리더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윤리적 원칙 가이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더의 윤리적 원칙 가이드	
황금규칙 (The Golden Rule)	• 내가 지금 의사결정하는 내용과 방식이 입장을 바꾸어 봤을 때에도 내 자신이 남들에게 받고 싶은 것과 같은 방식인가?
직업적 윤리 (The Professional Ethic)	•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의사 결정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제 3자의 입장에 있는 내 동료들이 보았을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칸트의 규칙 (Kant's Imperative)	•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해도 우리 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
공리적 법칙 (The Utilitarian Rule)	• 내가 의사결정하는 내용과 방식이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60분 쇼 법칙 (The '60 Minutes' Test)	• 내가 의사결정하는 내용과 방식을 60분짜리 유명한 쇼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할 경우에도 자신 있게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1) Heres,E.;Lasthuizen,K.(2012). What's the difference? Ethical leadership in public,hybrid andprivate sector organizations. Journal of Change Management,(4):441-466.

2) 박상석, 김찬중, 조직의 정단성과 합리성, CEO의 윤리적 리더십 그리고 조직성과의 관계(2018)

윤리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들의 윤리적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청렴윤리경영의 이행에 있어 경영진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위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중요시하며, ‘환경조성’ 분류에서는 직접적으로 ‘리더십’에 대해 다루면서 고위 경영진의 CP 실천의지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① 고위 경영진의 실천의지: 고위 경영진이 CP 실천의지에 대한 지지와 약속을 공표하고 있는가?

- 고위 경영진이 공식행사, 신년사 등을 통하여 CP 실천의지를 직접 표명
- CP 실천의지를 행정망 및 외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내·외에 공개
- CP 실천의지 표명 관련 고위 경영진의 외부 행사 참여, 신문기사 등의 홍보
- 고위 경영진의 CP 실천의지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설문 등으로 점검

② 고위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청렴윤리경영 CP 실천 및 문화 정착을 위하여 고위 경영진이 적절히 노력하였는가?

- 고위 경영진이 청렴윤리경영을 위해 적절한 인적·재정적 지원 제공
- 징계 강화, 제재 집행 등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태도 표명
-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결의 전달
- 월·주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CP 제도운영 현황, 성과 등에 대해 직접 확인·점검

이처럼 청렴윤리경영 CP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위 경영진이 실천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CP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하며, 일관적 태도로 내·외부 관계자에게 그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리더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공정거래 CP)이 존재한다. 기업이 공정거래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공정거래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CP에서도 위의 청렴윤리경영 CP와 유사하게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의 천명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의 천명>

① 경쟁법³⁾의 자율준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의 표명이 매우 중요하다. 최고경영자는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② 자율준수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자율준수 행동강령이나 자율준수정책과 같은 형태의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 문서는 이사회회의 결의 등을 통해 채택되고, 기업 내부의 종업원은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대중에게 공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서의 내용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율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신념과 의지
- 공정한 시장경쟁이 해당 기업에 가지는 의미
- 자율준수를 위한 임직원들의 책임과 역할
- 경쟁법을 위반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

지금까지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과 리더의 역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윤리적 리더십에 따라 전 구성원에게 청렴윤리문화가 퍼져나가고, 결국 조직에 청렴윤리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 윤대혁, 윤정현, 김대수, 『글로벌시대의 윤리경영론』(탐북스)
- 윤정구, 『21세기 한국 리더십의 새로운 표준 진성리더십』(라운북스)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2001)
<https://www.kfcf.or.kr/compliance/compliance/read.do?no=13>
- 류기동, 김정식, 「윤리적 리더십이 리더동일시, 조절초점 및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808962642477.pdf>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 오승택, 김찬중 M&A 이후 최고경영자의 윤리적 리더십, 변화저항,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2022)
- 박상석, 김찬중, 조직의 정단성과 합리성, CEO의 윤리적 리더십 그리고 조직성과의 관계(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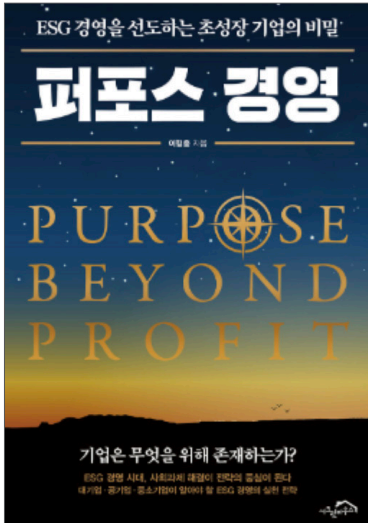
3)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은 회사의 독점적, 협조적, 또는 경쟁방법으로서 불공정한 행동을 규율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성을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한 법령의 총칭 내지 법 분야(출처: 위키백과)



문화 속
기업윤리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도서, 퍼포스 경영



* 이미지출처: YES24

블랙록(BlackRock)의 CEO 래리 핁크(Lawrence Douglas Fink)는 이미 2018년부터 연례 서한을 통해 기업에 장기적 관점을 강조해 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훌륭한 기업들은 모두 명확한 목적의식(Sense of Purpose)을 가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흐름은 기업에 주주 이익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고객, 거래업체, 지역 사회의 이익을 고루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경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식이 더욱 높아진 소비자들은 사회를 보다 이롭게 하는 좋은 기업을 기대한다. 기업이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화하였고, 이를 부담으로 여길 것인지, 기회로 여길 것인지는 기업의 몫이다.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은 사회의 한 기관이고, 그 목적은 사회에 있다'고 했다. 기업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은 결국 사회의 구성원이기에 기업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결국 고객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며, 기업의 목적은 사회에 향해 있어야 한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맞춰 세계의 기업들은 퍼포스를 점검 하고 재정의하고 있다. 퍼포스란 기업이 앞으로 실현하고 싶은 이상적인 지향점(where)인 '비전'과 기업이 무엇(What)을 달성하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성인 '미션'과 달리, 퍼포스는 기업이 왜(Why)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정의하고, '만약 우리 기업이 없다면 세상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라는 존재 의의를 포함한다.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윤리경영 활동을 하는 것과 기업의 존재 목적 자체가 사회를 향해 있는 것은 다르다. 요구에 의해 형식적으로 윤리경영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퍼포스의 재정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1차 시범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1차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 연말 심사 계획을 공유하고 예비심사지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윤리경영 CP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작년부터 시범운영에 참여해 온 6개 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을 대상으로 CP 운영기반 조성 관련 지표 및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CP 운영기반 조성 수준에 대한 진단과 함께 공기업 CP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예정이며, 우수사례 제출 기관에는 청렴윤리경영 실천·확산 유공 포상이 주어진다.

국민권익위, 국제사회와 한국의 반부패 제도 발전 경험 등 공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반부패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 발전 내용을 발표했다. ‘타슈켄트 반부패 포럼’은 부패척결 및 예방에 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한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토론회 주제 중 하나인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으로서 개방성 및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 한국의 반부패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2002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이후,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그리고 최근 2020년 공공재정환수법 및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반부패 제도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 디지털 기반 반부패 투명성 제고 정책을 공유했다.

국내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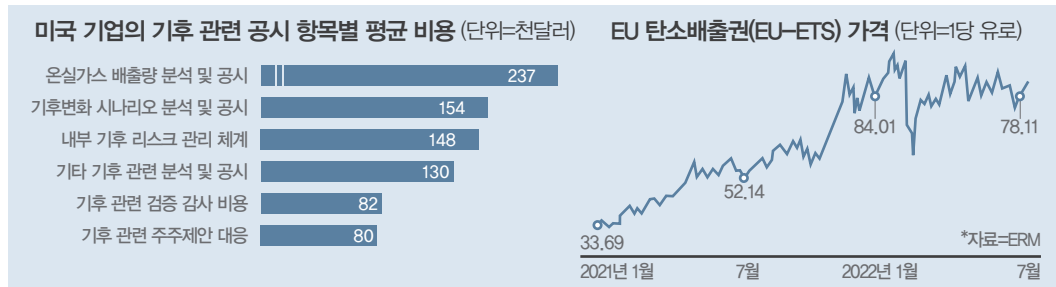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IPEF 참여국들은 9월 8일~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협상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무역 분야에서는 팬데믹 이후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농업·식량안보, 투명성 등의 무역규범 및 협력을, 공급망 분야에서는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 모색,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공정경제 환경 구축을 통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투명성 제고를 논의한다. 특히 공정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UN 반부패 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 강화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 9. 10.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6009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글로벌 ESG 컨설팅 회사 ERM이 최근 미국 기업 39곳과 기관투자자 25개를 대상으로 설문 실시한 결과, 미국 기업이 자발적 기후 공시에 사용하는 평균 비용은 기업당 67만7000달러(약 9억 원)로 나타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 초안을 마련했다. SEC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제품 생산 등 기업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스코프1)과 전기, 스팀, 냉방 등 에너지를 통해 발생한 간접 탄소배출량(스코프2)을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와 협력사 등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배출량인 스코프3 공시 의무도 제한적으로 부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820곳은 기후 관련 정보 공시에만 연 738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매일경제, 2022. 8. 17.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8/728476/>



바로보는 기업윤리

웹툰

소통의 힘



CEO와 직원 간 거리, 정말 멀수록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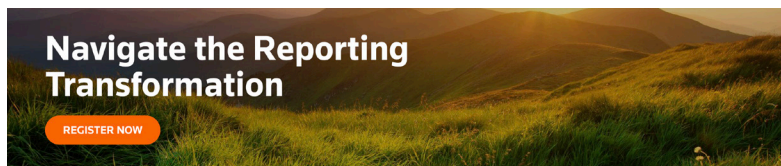
마음을 연 소통은 서로 간에 신뢰를 쌓고, 나아가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입니다.

-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정책결정권자 또는 선거 입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정책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공개회의로,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토대로 평가됨



행사소식

Sustainability Reporting & Communications USA 2022



지속가능보고서에 유용한 데이터 수집 및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 그룹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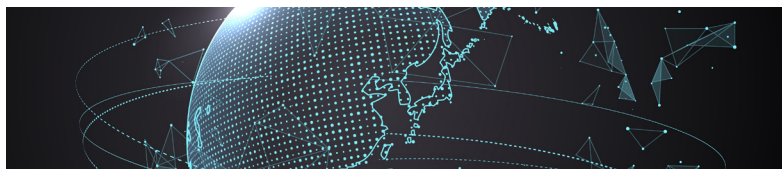
주최 Reuters

일정 2022년 11월 1일(화) ~ 2일(수)

장소 New York Marriott at the Brooklyn Bridge, USA

참고 <https://events.reutersevents.com/sustainable-business/reporting-usa>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아시아 지역 여름 아카데미 개최



반부패 전문 교수진 및 실무자들이 강의, 토론, 현장학습 등을 통해 반부패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공

주최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IACA)

일정 2022년 11월 19일(토) ~ 25일(금)

장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참고 <https://iaca.int/iaca-programmes/open-trainings/regional-summer-academy.html>

※신청기간 : 10월 16일(일), 문의 : summeracademySEA@iaca.int



Q. 존경받는 글로벌 기업들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사회적 책임
- ② 준법정신
- ③ 이해관계자들과 공유가치 창출
- ④ 이윤 극대화 정책

퀴즈 응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mail@innocrew.co.kr)
정답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10월 20일 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 호 정답자는
김우현님, 문지은님, 김도희님, 김정호님, 백인성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 | |
|----------|--------------------------|
| ① 상담신청 |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 |
| ② 상담관지정 |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 ③ 사실관계조사 |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 ④ 결과확인 |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